

고등학교

문학 자습서

정재찬 교과서편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교과서 **핵심 내용**은 **쑥쑥**, **친절한 해설**은 **기본!**
- **문학 학습의 방향**을 잡아 주는 필수적인 **자기 주도 학습서**

1

대단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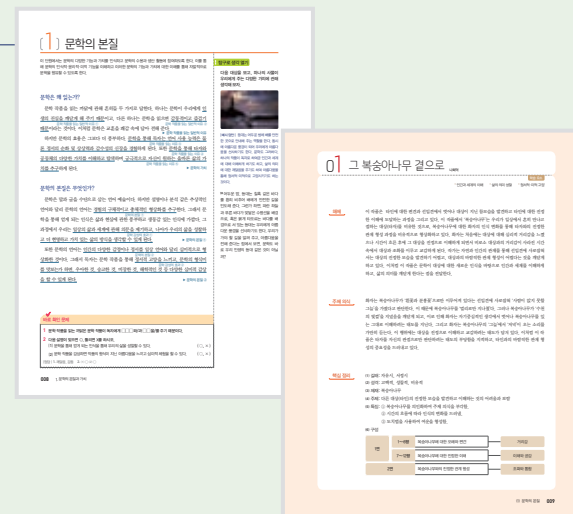
- **단원 학습을 통해** : 대단원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대단원 길잡이+돌아보기** : 이 단원에서 학습할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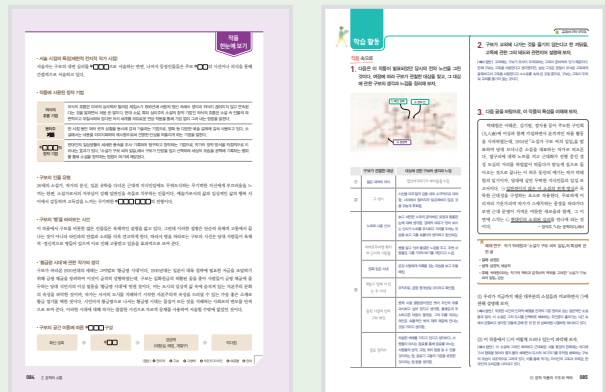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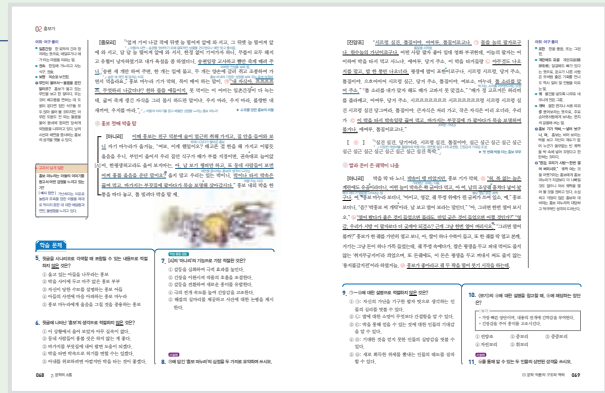
소단원 도입

- **소단원 이론 정리** : 교과서의 각 소단원에서 제시한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여 개념과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탐구로 생각 열기** : 소단원을 들어가기 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의 의도를 파악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동의 예시 답안을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소단원 작품 미리보기** : 읽기만 해도 작품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품 해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학습 전, 배운 내용을 상기하고 핵심 내용을 점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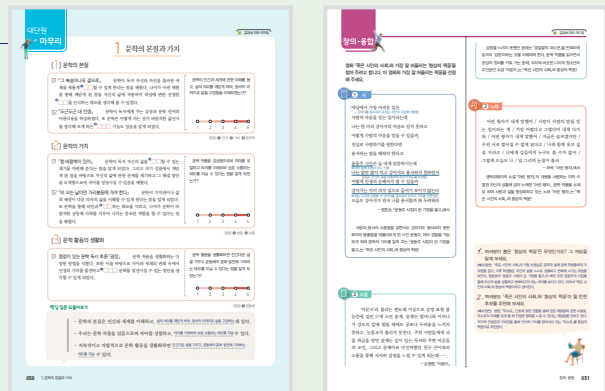
3 소단원 학습

- **교과서 전 지문 수록** : 내신의 기본인 교과서 지문에 대한 상세한 행간주로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핵심 쏙쏙** :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자습서를 꼼꼼히 보았을 때의 방만함을 잡아 주도록 하였습니다.
- **확인 문제** : 제시된 지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학습 활동 응용, 서술형, 능력형 문제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현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학습 활동** : 교과서 내용 중 시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 활동의 예시 답과 활동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활동을 스스로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활용된 지문의 예시 답안과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학습하면 복합 지문 문제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 작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도식화하여 알아보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콕 짚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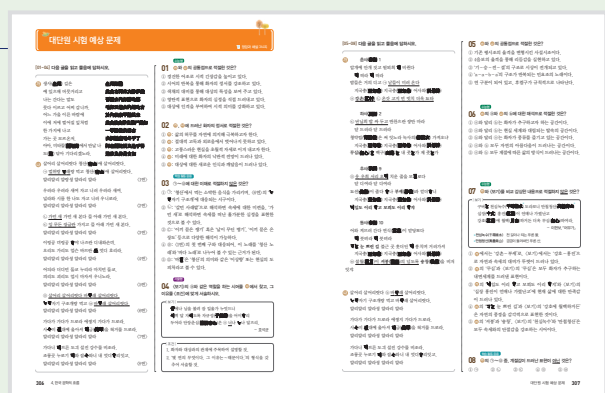
4 대단원 점검

- **대단원 마무리** : 단원의 마무리 활동에 대한 예시 답을 제시하여 교과서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 **창의 융합**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 활동의 답을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다.



5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로 실력을 다지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 **대단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소단원 작품과 학습 활동, 교과서 외 지문을 두루 활용**하되,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을 선별하였습니다.





이 책의 차례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1) 문학의 본질

- 0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_나희덕 009
- 02 두근두근 내 인생 _김애란 013

(2) 문학의 가치

- 01 흰 바람벽이 있어 _백석 023
- 0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_양귀자 028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 쟁점이 있는 문학 독서 토론 (광장_최인훈) 040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052



2 문학의 소통

(1) 문학 작품의 구조와 맥락

- 01 산도화 _박목월 061
- 02 흥보가 _작자 미상 / 김연수 바디 066
- 03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_박태원 075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 01 즐거운 편지 _황동규 088
- 02 로디지아발 기차 _네이딘 고디머 093
- 03 허생전 _박지원 104

(3) 문학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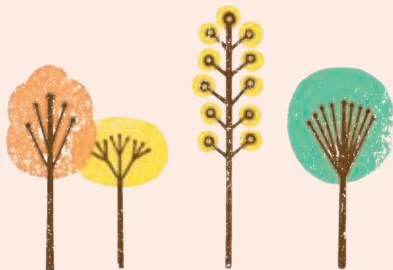
- 01 남한산성 _김훈 115
- 02 총, 꽃, 시 _정재찬 125
- 03 만화 토지 _오세영 133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144



3 한국 문학의 성격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01 어미 말과 새끼 말 _작자 미상	157
02 송인 _정지상	163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01 사미인곡 _정철	169
02 태평천하 _채만식	181
(3) 한국 문학의 양상과 발전	
01 정선 아리랑 _작자 미상	192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199



정답과 해설	320
---------------	-----

4 한국 문학의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01 제망매가 _월명사	208
02 청산별곡 _작자 미상	212
03 어부사시사 _윤선도	217
04 쉽게 씌어진 시 _윤동주	222
0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_김수영	227
(2) 서사 갈래의 흐름	
01 김현감호 _작자 미상	234
02 구운몽 _김만중	241
03 너와 나만의 시간 _황순원	251
0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_조세희	261
(3) 극 갈래의 흐름	
01 봉산 탈춤 _작자 미상	271
02 원고지 _이근삼	280
(4) 교술 갈래의 흐름	
01 관상가와와 대화 _이규보	292
02 젊은 아버지의 추억 _성석제	298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306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1] 문학의 본질

[2] 문학의 가치

[3] 문학 활동의 생활화

한학기 한권책읽기

창의·융합 활동





우리는 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할까?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다룬다. 그
문학의 내용
 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관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①-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가치
 새로운 인식과 발견을 얻고, 삶의 의미를 깨닫
문학의 표현 수단
 게 되곤 한다. 하지만 문학은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통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②-문학의 정서적, 심미적 가치
 해 정서를 고양하고 심미적 경험까지 하게 되
 는 것이다. ▶ 문학의 본질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이러한 인지적·정의
 적·심미적 활동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수용하며

생산해 왔다. 우리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의 삶을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③-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가치
 이해하며, 자신의 문학적 체험을 표현하게 된다. 나아가 문학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④-문학 활동 생활화의 가치 ▶ 문학 작품의 가치 ①
 더구나 인공 지능 시대를 눈앞에 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인성과 윤리 의식을 고양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문학은 그 교육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⑤-교육적 가치①
 적 가치가 늘 인정되어 왔다. 또한 문학은 무엇보다도 창조력의 기반이 되는 상상력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⑥-문학의 교육적 가치 ②
 과 감수성을 길러 준다. ▶ 문학 작품의 가치 ②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문학의 본질을 깨닫고,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
문학의 본질과 가치의 이해
 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문학 활동을
문학 활동 생활화를 통한 삶의 고양과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
 생활화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
 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

단원 학습을 통해

-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
 해할 수 있다.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돌아보기

이 단원의 학습과 관련된 나의 경
 험을 떠올려 보자.

>문학의 본질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경험
 을 소개해 보자.

| 예시 답안 | 초등학교 때 권정생의 소설
 『강아지똥』을 읽었는데, 이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감동했던 적이 있다.

>문학의 가치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았거
 나 타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경
 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 중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와
 헤어져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고재중의
 시 『첫사랑』을 읽고, 헤어짐이 오히려 성숙
 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혼란스러
 웠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또한, 친
 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문학 활동의 생활화

실생활에서 비평문을 쓴다거나 백일
 장에 참여하는 등의 문학 활동을 했
 던 경험을 소개해 보자.

| 예시 답안 | 고등학교에 올라와 문학 토
 론을 하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읽은 책에 대해 논제를 정해 토
 론한 후, 서평을 써 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1] 문학의 본질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은 왜 읽는가?

문학 작품을 읽는 까닭에 관해 흔히들 두 가지로 답한다. 하나는 문학이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을 읽으면 감동적이고 즐겁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일반적 이유 ① 문학 작품을 읽는 일반적 이유 ②

하지만 문학의 효용은 그보다 더 풍부하다. ▶ 문학 작품을 읽는 일반적 이유 ③ 문학을 통해 독자는 언어 사용 능력은 물론 정서의 순화 및 상상력과 감수성의 신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④ 문학을 통해 타자와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탐색하며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⑤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 문학의 가치

문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학은 말과 글을 수단으로 삼는 언어 예술이다. 하지만 설명이나 분석 같은 추상적인 언어와 달리 문학의 언어는 문학의 본질 ① 경험의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형상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은 삶과 현실에 관한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인식에 가깝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과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학 감상의 효과 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 문학의 본질 ①

또한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를 일상 언어와 달리 심미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의 본질 ② 정서적 고양을 느끼고, 문학 감상의 효과 ② 문학의 형식미를 맛보는가 하면, 우아한 것, 숭고한 것, 비장한 것, 해학적인 것 등 다양한 심미적 감상을 할 수 있게 된다. ▶ 문학의 본질 ②

! 탐구로 생각 열기

다음 대상을 보고, 하나의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가치에 관해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등대는 어두운 밤에 배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문학도 그러하다. 하나의 작품이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에 대해 이해하게 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며 아름다움을 통해 정서적·미적으로 고양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 어두운 밤, 등대는 칙칙 같은 바다를 환히 비추어 배에게 안전한 길을 인도해 준다. 그런가 하면,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을 배경으로, 혹은 붉게 타오르는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등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고, 아름다움을 전해 준다는 점에서 보면, 문학도 바로 우리 인생의 등대 같은 것이 아닐까?

바로 확인 문제

- 1 문학 작품을 읽는 까닭은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와/과 ☐☐을/를 주기 때문이다.
-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X를 하시오.
 - (1) 문학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
 - (2)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의 형식이 지닌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 ×)

[정답] 1. 깨달음, 감동 2. (1) ○ (2) ○

0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희덕

학습 요소

• 인간과 세계의 이해 • 삶의 의미 성찰 • 정서적·미적 고양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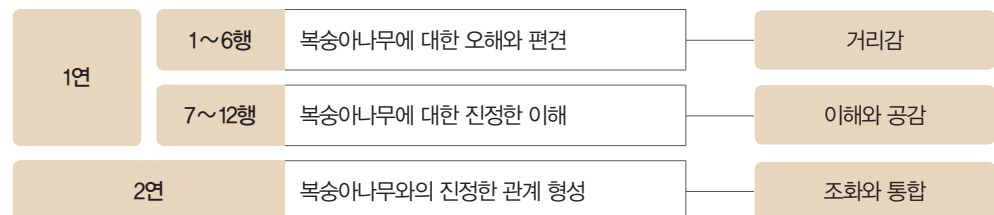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복숭아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고 접하는 대상(타자)을 비유한 것으로,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 형성 과정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처음에는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비로소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속에서 대상과 조화를 이루고 교감하게 된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대상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문학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을 전달한다.

주제 의식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복숭아나무를 ‘멀리로만 지나쳤다’. 그러나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지녔음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화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복숭아나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는다. 이 행위에는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타자를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려는 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 (2) 성격: 고백적, 성찰적, 비유적
- (3) 제재: 복숭아나무
- (4) 주제: 다른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보람
- (5) 특징: ①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③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함.
- (6) 구성



어휘·어구 풀이

❶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저녁이 오는 소리를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화자와 대상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관계 형성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치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핵심 쏙쏙

●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복숭아나무에 대한
재인식·깨달음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공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 →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타인 대상의 의인화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상과의 거리감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그’의 반복 →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는 기능

❸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 타인에 대한 선입견(편견)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행위 → 대상에 대한 편견의 결과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여러 겹의 마음 → 대상의 본질 인식(타인의 진정한 모습)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대상에 관한 이해의 시작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 → 화자의 질적 성숙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가진 이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상에 관한 이해의 심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❹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들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어울림의 시간

▶ 복숭아나무에 대한 선입견과 거리감

▶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 발견

▶ 복숭아나무와 화자와의 진정한 관계 형성

학습 문제

정답과 해설 321쪽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지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④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형성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대상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공간이다.
- ② ㉠은 ㉡와 달리 화자가 가고 싶었던 이상적 공간이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했던 공간이다.
- ④ ㉠은 ㉡와 달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비애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은 ㉡와 달리 대상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학습 활동 응용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의 시어 및 시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자연물과 자연 현상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형상화하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① ‘복숭아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타인을 의미하는군.
- ②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타인에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에 해당하는군.
- ③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가진 선입견만으로 판단한 타자의 모습이로군.
- ④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은 화자가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한 결과로군.
- ⑤ ‘저녁’은 타인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시간을 뜻하는군.

서술형 학습 활동 응용

4. 위 시에서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서술하시오. (단, 화자의 행위를 근거로 제시할 것.)

•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시상 전개	인식	태도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❶□□	-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 -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함.	-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음. -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며 거리를 둠.
↓		
복숭아나무에 대한 재인식·깨달음	-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게 됨. -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함.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를 이해하게 됨.
↓		
복숭아나무에 대한 ❷□□와 공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음.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짐.

• 표현상의 특징

시구	표현상의 특징
~습니다 / ~입니다	경어체와 ❸□□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고백함.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함.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	대상을 ❹□□□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조금은 심심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❺□□□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 시구의 함축적 의미

시구	함축적 의미
복숭아나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타인)
흰꽃과 분홍꽃	피상적으로 드러난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선입견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상의 ❻□□□ 모습
수천의 빛깔	여러 겹의 마음,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❷□□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 대상과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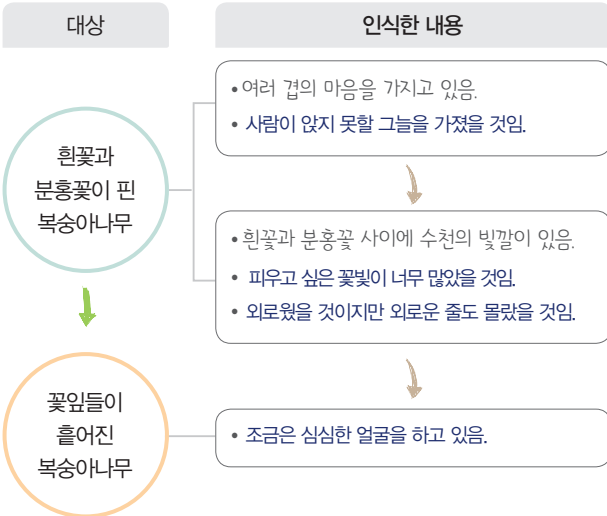


학습 활동

교과서 016-017쪽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이 작품의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얻은 깨달음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은 자연물에 빗대어 인생의 체험을 노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밝혀 보자.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선입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
수천의 빛깔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2) 이 작품의 화자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자.

화자가 깨달은 점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의 적용	예전에 나의 아버지는 늘 엄해서 가까이하지 못할 만큼 무서웠기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늘 거리감이 느껴졌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진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

작품 너머로

3. 다음 작품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와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피상적 관찰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사람들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서로 간에 거리감 없이 친밀함만으로 살아가는 줄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필요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 숲에 대한 기존의 인식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 간격의 중요성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시련과 위기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산불이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 얻은 깨달음
- 안도현, 「간격」

▶ 숲에 관한 새로운 인식

작품 연구 안도현, 「간격」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어조: 독백적 어조, 성찰적 어조
- 주제: 적당한 간격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 특징: ① 나무를 인격화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함.
②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을 대비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부각함.

(1) 위 작품의 화자가 '숲'에 대해 인식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숲을 멀리서 보았을 때	숲에 들어가 보았을 때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룬다.	나무와 나무 사이, 즉 간격과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룬다.

(2) 위 작품의 화자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화자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방식의 차이점을 발표해 보자.

[예시 답안]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즉 「그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해 멀리하려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간격」은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숲을 멀리서만 보았을 때에는 나무들이 뻗뻗하게 모여 숲을 이루는 것이라 인식했지만,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나무와 나무 사이의 그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02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학습 요소

• 인간과 세계의 이해 • 삶의 의미 성찰 • 정서적·미적 고양

해제

이 작품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열일곱 살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로, 한 소년의 삶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주인공 아름의 인생은 짧지만 인간이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하는 희로애락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제목의 ‘두근두근’은 주인공이 일생 동안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의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비극적 상황 속에 놓인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심지어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특히 재치 있는 표현과 다양한 수사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감동을 더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고등학생 ‘미라’는 열일곱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는 엄마와 아빠지만 ‘나’(아름)의 부모는 ‘나’가 크는 것을 보며 행복해한다.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늙어 가는 병인 조로증에 걸려 노인의 몸이 되어 가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다. 우연히 출연한 방송에 ‘나’의 사연이 소개되자 서하라는 소녀가 메일을 보내오고, ‘나’는 서하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 가지만 서하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취재를 위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음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부모님이 지켜보는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핵심 정리

- (1) 갈래: 장편 소설, 성장 소설 (2) 성격: 자기 고백적, 성찰적
- (3)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4) 배경: 시간적 - 현대, 공간적 - 주로 병원과 집
- (5) 주제: 죽음을 앞둔 소년이 겪은 삶에 대한 소망과 가족 간의 사랑
- (6) 특징: ① 난치병을 앓는 소년의 삶을 유쾌한 시각으로 그려 뉘으로써 삶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함.
 ② 부모보다 늙은 아들, 아들보다 젊은 부모라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성찰함.
 ③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참신하게 드러내고 있음.

(7) 구성

발단	미라와 대수가 사랑하여 ‘나’를 낳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생활함.
전개	‘나’는 조로증에 걸리고 이로 인해 집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함.
위기	‘나’는 서하라는 소녀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감.
절정	‘나’는 서하가 작가 지망생이 꾸며 낸 인물임을 알고 절망함.
결말	‘나’는 부모님에 대한 소설을 쓰고, 부모님이 지켜보는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함.

[중략 부분 줄거리]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나’의 부모는 ‘나’가 크는 것을 보며 행복해한다.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 가는 조로증에 걸려 병원에 다니게 된다.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감동 발생의 원인} 암 투병 중이라는 ‘서하’라는 소녀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는다.

④ 나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나’가 ‘서하’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동병상련)} 그 애에게 건넨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서하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하나 몰라서였다.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건,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 한다는 거였다. / ‘하지만 표가 나서는 안 돼……’

나는 그 애에게 때 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나’. 서하가 ‘나’를 쉬운 상대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족해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 ^{만족감을 넘어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지를 쓰고 싶음}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아!’ 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 내는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쓸러 ^{어떤 사건이나 발표 따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일어나는 반응} 오길 바랐다. / ‘하지만 어떻게?’

^{서하에게 감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러자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떠올랐다.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현학적인 글} 핫핫해지는 내용들이었다.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데다 ^{유치한 글}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어우’ 손사래 쳤던 글들을 내가 쓰고 있었다.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관한 표현이어서 부끄럽게 느껴졌던 글들} 도도한 초등학생이 쓴 산문 같고, 또 어떤 것은 ^{현학적인 글} 인문대 복학생이 쓴 잡문 같았다. 이젠 뭐 공작도 아니고, ㉠ 수컷들 깃털 자랑 하듯 구애하는 모양새라니. /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현학적인 글} 낯설고 불편했다. /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 자신이 쓰려는 답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어휘·어구 풀이

- **임계점**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평형 상태의 두 물질이 하나의 상(相)을 이룰 때나 두 액체가 완전히 일체화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이름.
- **핫핫** 달듯이 뜨거운 기운이 이는 모양.
- **현학적**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또는 그런 것.
- **도통** 도무지.
- ① **그건, 내가~한다는 거였다.** 편지를 잘 쓰기 위해 쉽게 답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매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가장 평범한~낯설고 불편했다.** 자신의 또래가 할 법한 고민을 하게 되는 자신이 낯설고 불편하다는 점으로 볼 때, 그동안 ‘나’가 병으로 인해 자신을 평범한 소년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핵심 속삭

- ‘나’의 고민

소망: 답신을 잘 쓰고 싶어 함.



현실: 관념적, 현학적이며 알 수 없는 내용임.

4. 윗글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 본 적이 없다.
- ② 앞으로 계속 서하와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 한다.
- ③ 그동안 자신이 평범한 소년과는 다르다고 여겼다.
- ④ 서하에게 쓰려는 답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한다.
- ⑤ 서하에게 자신이 글을 잘 쓰기 위해 애쓴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5. ‘나’가 ‘서하’에게 쓰려는 답신의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자신이 무척 지적인 사람을 호소하는 내용
- ㄴ. 자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ㄷ. 자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함을 알리는 내용
- ㄹ. 상대에게 만족을 뛰어넘어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6. ㉠에 담긴 ‘나’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 두렵다.
- ② 글쓰기를 매력을 뽐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 부끄럽다.
- ③ 글쓰기에 자신의 삶이 반영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 ④ 글쓰기만이 나의 여러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 매우 신이 난다.
- ⑤ 글쓰기로 서하를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어휘·어구 풀이

- 생동맞은 하는 행동이나 말 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한.
- 풍판 박공집으로 지은 전각이나 신당(神堂)의 두 쪽 박공 아래에, 바람과 비를 막으려고 길로 잇대는 널빤지.

핵심 속삭

- '나'의 심리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

-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역설적 표현으로 '나'에게 서하가 큰 의미로 다가옴을 나타냄.
-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 은유적 표현으로 서하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냄.

교과서 날개 질문

'나'가 현재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 '이서하'라는 소녀에게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는 글을 쓰고 싶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이라는 문장을 통해 '나'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짐작해 보자.

| 예시 답안 | '나'가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 허공에 '이서하'란 이름을 쓰자 '풍향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편지의 첫 문장이 불현듯 떠올라 '나'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려고 마음먹음을 나타낸다.

㉠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다.”라고 촌평한 걸 듣고 깔깔댔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 ^{‘나’의 내면이 그와 같음} 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단 말인가? ㉡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서하.....”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매우 신중한 태도로 '이서하'라는 이름을 발음함.}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열세 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 보았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됨.}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해,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 어떻게 답신을 쓸지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답신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나'

㉣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란 말을 써 보았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로였다. 한 소년의 팔십 먹은 폐와 심장, ^{조로증을 앓고 있는 '나'의 처지가 드러남.}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나는 김 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다시 그 애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동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돌아났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바람이 불기 시작함.}

㉤ 어디선가 빼겨 하고 낡은 풍판(風板)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 자 한 자 따라 읽었다.

▶ 본격적으로 답신을 쓰기 시작하는 '나'

학습 문제

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답신에 자신의 본모습이 담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 ② 상대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된 것인지 성찰하고 있다.
- ④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익힌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여러 욕망이 담긴 답신을 그대로 써도 될지 고민하고 있다.

8. ㉢에 쓰인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 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②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 ③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 ④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 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잊목

서술형

9. ㉤을 통해 표현하려는 '나'의 태도 변화를 서술하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하’가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라 서른이 넘는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 그 후로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마 “아빠?” /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병세가 악화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된 ‘나’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 “아빠?”

나는 호흡이 달려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아름아.” / “나 좀 무서워요.” / “.....”
말줄임표를 통해 더할 수 없이 큰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냄.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 나를 안았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A] 아버지는 간호사의 만류 따위 아랑곳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그러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했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쿵..... 쿵..... 쿵..... 쿵.....’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러지는 동심원이 토성 주위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곤 다시 자리에 누워 어머니를 찾았다.

▶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나’

어휘·어구 풀이

● **자장** 자기장 자석의 주위, 전류의 주위, 지구의 표면 따위와 같이 자기의 작용이 미치는 공간.

① **그러곤~휘청했다.** 죽음을 앞둔 자식의 몸은 병으로 인해 가벼워져 있지만, 가벼워진 몸의 자식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괴롭고 무겁기만 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핵심 쏙쏙

● ‘나’가 부모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은 순간

어머니의 뱃속	아버지의 품속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로, 두렵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음.	죽음의 순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음.

교과서 날개 질문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예시 답안]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아버지와 ‘나’가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 즉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다.

학습 활동 응용

10.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의 방법을 통해 자식과 아버지의 괴리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병든 자식보다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고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은유법을 사용하여 병든 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병들어 가벼워진 자식을 안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11.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한 공간에 머물고 있다.
- ② 아버지와 ‘나’는 정서적으로 깊게 교감하고 있다.
- ③ 아버지와 ‘나’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 ④ 아버지와 ‘나’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
- ⑤ 아버지와 ‘나’는 병을 이기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다.

서술형

12. ‘나’가 ㉡의 행동을 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어휘·어구 풀이

- **엽산** 폴산. 헤모글로빈 형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비) 복합체. 태아의 신경과 혈관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 전과 임신 초기의 임신부에게 권장되기도 함.
- **아둔하게** 슬기롭지 못하고 머리가 둔하게.
- ① “가끔 궁금했어요~않았을까.” 병든 ‘나’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져 나를 미워했던 순간도 있었으리라 짐작하며 한 말이다. ‘나’가 어머니의 삶을 공감하며 던진 질문으로, 그동안 힘들었을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이제 그런 것은~중요할 리 없었다. ‘나’가 죽음의 순간에 원망의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핵심 쏙쏙

● 말과 행동에 나타난 ‘나’의 성격

-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원망하지 않음.
- 죽어 가면서도 태어날 동생을 축복하고 있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남겨질 부모님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

바 “엄마?” /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 “응, 다 물어봐.”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시킨 않았을까.”^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엄마?” /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다. / “응.”

“배 한번 만져 봐도 돼요?” / 어머니는 당황했다. / “왜?”

어머니가 동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

“그냥요.” / “알고…… 있었니?”

동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은 어머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왔다.

“응,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걱정돼서 찾아봤었어요.”

“……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나’에 대한 미안함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 주세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갖지 그러셨느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기억도 굳이 헤집어 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할 리 없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점점 더 위독한 상태가 되어 감.

“아빠.” / “응?”

‘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대화만으로 담담하게 표현함.

“그리고 엄마.” / “그래.”

그러곤 남아 있는 힘을 가까스로 짜내 말했다.

“보고 싶을 거예요.”

▶ 끝까지 가족을 배려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나’

학습 문제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관찰한 바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 ② ‘나’는 태어날 동생이 자신의 존재를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③ ‘나’는 어머니가 먹는 엽산을 보고 어머니가 임신했음을 알아챘다.
- ④ ‘나’는 어머니가 동생을 임신한 것이 ‘나’ 때문임을 숨겼다고 여겼다.
- ⑤ ‘나’는 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다.

•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에 담긴 상징적 의미

'나'가 '두근두근'하는 심정을 느꼈던 순간		
태아일 때	첫사랑을 느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음.	'이서하'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남.	아버지의 품에서 '쿵…… 쿵…… 쿵…… 쿵……' 소리를 들음.
낯선 세상에 대한 ❶□□□과 기대감을 느낌.	첫사랑에 대한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낌.	아버지의 두려움과 '나'에 대한 진실한 ❷□□을 느낌.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은 비록 짧은 삶이지만,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낀 의미 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함.

•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과 문학 언어의 특성

직유법	‘그때마다 나는 여진에 민감한 순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직유법을 통해 ‘나’가 세상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함.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트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직유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싱그럽게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음을 표현함.
❸□□□ 표현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역설적 표현으로, 잔잔하기만 했던 ‘나’의 일상에 ‘이서하’가 큰 의미로 다가왔음을 강조함.
은유법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은유법을 통해 어머니의 ❹□□□□ 소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제시함.
도치법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직유법과 도치법을 통해 병으로 인해 ‘나’의 몸은 가벼워졌지만, 그런 ‘나’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과 사랑, 책임감은 더 커졌음을 표현함.



문학 언어의 특성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언어 자체가 지닌 ❺□□□□을 극대화하여 보여 줌.
-----------	--

• 서사적 중층 구조

‘조로증’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서사적 중층 구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젊음의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열일곱 나이에 ‘조로증’을 감내하는 아픈 청춘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주인공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한 채 오히려 세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이 특이한 아이러니가 이 소설의 새로운 매력이 되고 있다.



학습 활동

교과서 025-027쪽

작품 속으로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자.

태아일 때 '두근두근'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두근두근'은 태아일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던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춤추고 싶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이서하……"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가슴속에 일었던 '기척'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가슴속에 '이서하'라는 존재를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이서하'라는 존재가 고요했던 '나'의 삶에 갑자기 큰 의미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품에서 '쿵…… 쿵…… 쿵…… 쿵……'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쿵…… 쿵…… 쿵…… 쿵……'은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로, '나'는 그 소리를 통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과 '나'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제목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설명해 보자.

'두근두근'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과 처음 만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설렘의 소리이고, '기척'에는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설렘과 기대감이 담겨 있다. 또 '쿵…… 쿵…… 쿵…… 쿵……'은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이다. 이러한 소리들은 모두 '두근두근'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나'에게도 벅찬 감정을 느낀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다음 문장들의 의미와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고, 문학 언어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가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 초록을 퍼트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나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의미 및 표현상 특징

가 직유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싱그럽게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서하'라는 존재가 그동안 잔잔하기만 했던 '나'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 직유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병으로 인해 '나'의 몸은 가벼워졌지만, 그런 '나'에 대한 아버지의 슬픔과 사랑, 책임감은 더 커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문학 언어의 특성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 방법이 쓰인 문학 언어는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지녀 전달 효과를 높이며,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보여 준다.

3. 다음 글은 문학의 정서적 체험과 관련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문학은 우리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을 통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다. ①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문학은 억압 없는 쾌락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준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 / 문학사회학』에서

(1) 이 작품을 읽으며 '감동'을 받았던 장면을 찾아보자.

[예시 답안] • 아름이가 고심 끝에 '이서하'에게 쓸 말을 떠올리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누군가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아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 아름이에게 동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아름이가 이를 이해하고 동생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아름이가 흑여 마음 아파할까 봐 그 기쁜 소식을 알리지 못했을 부모님의 아픔과 이를 모두 이해한 아름이의 성숙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2) 이 작품을 감상하고 위 글의 ①과 관련하여 가졌던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아버지가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를 힘껏 안는 장면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이라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 아픈 아들인 '나'의 가벼운 몸을 안으면서 '휘청댔다'라는 표현을 통해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절묘하게 드러냄으로써 아버지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슬픔, 책임감에 가슴이 뭉클했고 가족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다.

4. 이 작품에 나타난 아픔의 '사랑'과 '가족'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자기 생각과 비교하여 보자.

	사랑	가족
아픔의 생각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상대에게 다가가야 함.	남겨진 가족까지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함.
나의 생각	신중하지만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다가가야 함.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어야 함.

작품 너머로

5. 다음 작품을 읽고, 윤리적 체험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앞부분 줄거리] 수남은 시골에서 상경하여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열여섯 살 소년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남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다. 자동차 주인은 큰돈을 요구하며 수남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운다. 갈등하던 수남은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가게로 돌아온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택에서 날라 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제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갈등 때문 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 만 나쁠 것은 또 뭐가. 자기 합리화 자 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뒤흔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던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

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뺨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 이 후닥닥 일어서서 수남이의 불안한 내면 심리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에서

작품 연구 박완서, 「자전거 도둑」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 성격: 교훈적, 성찰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시간적—1970년대, 공간적—서울
- 주제: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주인공 수남의 생각과 심리를 섬세하게 서술하고 있음.
② 순수한 소년의 눈에 비친 비정한 어른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음.

(1) ‘수남’이 낮에 느꼈던 ‘공포’와 ‘쾌감’을 떠올리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끌고 오면서 도둑질을 했다는 공포와 자신을 괴롭힌 이에게 복수를 했다는 쾌감을 동시에 느낀다. 하지만 밤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해 보니 죄책감보다 쾌감이 더 컸음을 깨닫고, 자신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닐까 걱정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 ‘수남’과 비슷한 느낌을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수남’의 선택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 신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자전거를 가져온 ‘수남’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야. • 이유야 어쨌든 말없이 자전거를 가져온 ‘수남’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야.

보충 자료 문학의 역할

사람의 정신적인 삶은 세계를 미적으로 통찰함으로써 더욱 높은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학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해 주고, 삶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심화해 주며, 새로운 감정 세계를 창조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장편 소설 「1984년」은 외부의 적을 빌미로 삼아 독재 체제를 영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한 가공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겪어 나가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독재 체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알게 되며, 그의 고통으로부터 슬픔과 분노와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감정이 정화되고, 정신적 삶이 고양된다.

—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 2013)

[2] 문학의 가치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이를 통해 지적·정서적·윤리적 정서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며, 나아가 상호 소통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문학은 자아 성찰에 어떤 도움을 줄까?

작가는 저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창조하여 그들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독자는 그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비교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며,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문학은 각 개인에게 지적·정서적·윤리적 성숙의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문학의 가치

▶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과 성숙

문학을 통한 소통은 어떻게 가능할까?

문학은 공동체 차원의 언어 예술적 소통 행위라 할 수 있다. 문학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떤 세계를 추구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질문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현실 세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다양한 삶과 인물의 지향을 통해 지배적 가치나 이념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의 추구가 가능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 인물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타자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며,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나아가 공동체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의 역할과 가치

▶ 문학을 통한 타자의 이해와 소통

! 탐구로 생각 열기

영화 「컨택트」에서 한 언어학자는 지구를 방문한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려 한다. 이 언어학자가 외계 생명체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온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해독하려는 언어학자



▲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의 언어를 가르치는 언어학자

[예시 답안] 지구에 갑자기 외계 생명체가 나타나자 지구인들은 그들이 왜 지구에 왔는지 알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과 외계 생명체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를 접한 경험도 없어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지구의 언어학자와 외계 생명체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서로의 언어와 사고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소통이라는 목적을 이룬다. 또한 인간이 궁금해하던,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온 까닭을 알 수 있게 된다.

»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해서 지구의 언어학자는 인류의 언어와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분석하여 그들의 언어를 익히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도 문학을 매개로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확인 문제

- 1 문학은 □□을/를 성찰하고 □□을/를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 2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X를 하시오.
 - (1)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 속 인물의 가치관에 무조건 공감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
 - (2)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 ×)

[정답] 1. 자아, 타자 2. (1) × (2) ○

01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학습 요소

• 문학을 통한 자아 성찰, 타자 이해 • 문학을 통한 상호 소통

해제

이 작품은 백석이 1941년에 발표한 시이다.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의 타지에서의 삶과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려 본 화자는 어려운 현실의 삶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리라는 생각과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흰 바람벽'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을 비춰 주는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은 현재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내면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주제 의식

이 작품은 화자의 현실 인식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성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起)에 해당하는 도입 부분에는 타지에서의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흰 바람벽에 비친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승(承)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의 고독으로 인한 쓸쓸한 정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轉)과 결(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흰 바람벽에 자신의 내면 의식을 담은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인식하지만, 이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현재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 (2) 성격: 회고적, 의지적
- (3) 제재: 흰 바람벽
- (4) 주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 (5) 특징: ①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 과정을 흰 바람벽을 매개로 형상화하고 있음.
②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선명하게 제시함.
③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열거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 (6) 구성

1~6행	흰 바람벽에 비친 애처로운 삶의 단면과 오고 가는 외로운 생각들	쓸쓸함, 외로움
7~16행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그리움, 쓸쓸함
17~23행	흰 바람벽에 비친 화자의 내면 의식과 운명론적 생각	운명への 순응
24~29행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극복 의지	고결한 삶에 대한 다짐

어휘·어구 풀이

-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돌레의 벽.
- **때글은** 때에 절여 검어진.
- **앞대** 어떤 지방에서 그 남쪽의 지방을 이르는 말.
- **개포** '개'의 평복 방언.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 ① **오늘 저녁~오고 간다** 화자가 추억한 것들로, 현재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에게 쓸쓸한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 ②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푸른색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운 날씨를 표현한 것으로, 촉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 ③ **그의 지아비와~저녁을 먹는다**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떠올린 것으로, 화자의 비참한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핵심 쏙쏙

●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

• 십오 축 전등 • 늙은 무명사쓰	• 늙은 어머니 • 사랑하는 사람
↓	↓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심화함.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시간적 배경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공간적 배경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 성찰의 공간

이 시의 주된 정서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화자의 가난한 처지 낡은 무명사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그리고 또 화자의 가난한 처지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화자의 외로운 내면 상태 외로운 생각

이 해매인다 과거의 추억과 관련된 소재

▶ 흰 바람벽을 보며 느낀 쓸쓸함과 외로움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시상 전환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리움의 대상 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촉각의 시각화(공감각적 심상)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움의 대상 ②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소박한 살림집 대곶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향토성)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흰 바람벽을 보며 떠올린 그리운 사람들

학습 문제

정답과 해설 322쪽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속적 소재를 사용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회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비되는 성격의 공간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해 시적 대상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2. 위 시 전체의 감상을 바탕으로 한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현재 좁은 방에 머물며 외로워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어머니가 힘들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사랑했던 사람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 ⑤ 화자는 절대자가 부정적인 것은 주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주셨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술형

3. 위 시 전체의 시상 전개 과정상의 특징을 쓰시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시상 전환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에 이르는 가까운 때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자아 성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화자의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글자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①

화자가 인식한 자신의 운명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 자신의 운명에 대한 순응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여럿의 힘을 합하여 억누르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화자의 의지를 복돋는 행위로 볼 수 있음.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

화자 스스로 이에 해당한다고 여김.

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②

『』: 자기 위로와 극복의 의지-가난하지만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여리고 순한 속성을 지닌 존재-화자가 동일시하려는 대상

그리고 또 ‘프랑시쓰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③

▶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



어휘·어구 풀이

- 호젓한 매우 홀가분하여 쓸쓸하고 외로운.
- 눈질 눈으로 흘끔 보는 짓.
- 바구지꽃 박꽃.
- 짝새 뱀새.

①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다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글자이지만, 화자의 내면 심리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여겨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②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다
자신이 하늘의 은총을 받은 존재이므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자긍심으로 현재의 처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③ ‘프랑시쓰 잼’과 ~그러하듯이
외롭고 고결하게 살았던 시인들로, 화자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 쏙쏙

- ‘흰 바람벽’의 기능

영상	글자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나타냄.	화자의 운명관과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냄.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매개체

학습 활동 응용

4. 위 시 전체의 감상을 바탕으로 한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치운 불빛’은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다 낡은 무명샤쓰’는 화자가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③ ‘따끈한 감주’는 괴로운 화자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향토적 소재이다.
- ④ ‘차디찬 물’은 어머니에 대해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이다.
- ⑤ ‘나즈막한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여긴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5. ‘흰 바람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내면 의식을 비추는 매개체이다.
- ② 추억의 인물의 모습이 그려지는 공간이다.
- ③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④ 화자의 쓸쓸하고 괴로운 처지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 ⑤ 화자가 꿈꾸는 밝은 미래를 영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형 학습 활동 응용

6. 위 시의 마지막 행에 나열된 인물들의 공통점을 쓰고, 이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시오.